



한발 앞서 살펴보는
**PREVIEW OF
KWC 2021**

6월 21일은 KWC 2021의 개최일이다. 기사를 작성하는 현재 코리아와인챌린지 사무국에서는 막바지 개최 준비와 집계가 한창이다. 챌린지 과정과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Wine Review> 8월호 발간을 기다리고 있을 독자들을 위해 가장 따끈따끈한 KWC 2021 소식을 이번 7월호에서 미리 전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장영수



Korea Wine Challenge
2021

KWC 2021 미리 보기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로 KWC 2021에 출품된 와인은 800여 종이다. 모든 집계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작년과 대비했을 때 확실한 증가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에 발맞춰 세계 와인 시장과 한국 시장도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탈리아, 칠레, 호주, 스페인,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와인이 출품되었고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미국, 그리스, 뉴질랜드, 캐나다, 조지아, 불가리아, 남아공, 스위스 등도 참여국에 이름을 올렸다. 헝가리, 루마니아, 이스라엘, 레바논 등 신규 국가의 등장도 눈에 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와인 시장의 회복세를 더욱 굳건히 뒷받침해 주는 반증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와인 시장 진입 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KWC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와인너리의 직접 출품은 물론 국내 수입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번 KWC 2021을 빛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챌린지 수상으로 자사에서 수입한 와인 품질을 인정받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기 때문에 KWC가 수입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매년 KWC 출품 와인을 선정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다방면으로 고심하는 수입사들이 올해 하반기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국내 와인 시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지표가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와인 업계가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와인 수요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돌아온 세계 와인 시장의 활력이 KWC 2021에서도 꽃 필 것으로 기대된다.☺

KWC 2020 다시 보기

올해 개최 17회를 맞이한 KWC 2021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KWC 2020의 발자취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와인을 소개한다'는 취지의 KWC 슬로건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총 16개국에서 650종의 와인이 출품되며 2019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세계적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다. 게다가 출품 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다.

가장 많은 수의 와인을 출품한 국가는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포르투갈, 뉴질랜드, 루마니아, 캐나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몰도바, 슬로베니아 순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와인의 강세가 지속된 한편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여기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생산자들이 많아졌으며 KWC를 한국 시장 진입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KWC 2020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존 주력 생산국들의 참여는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산지의 와인 출품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코리아와인챌린지 사무국 신승우 팀장



KWC 2021 예선 와인을 심사중인 모습